

오늘날은 상호교류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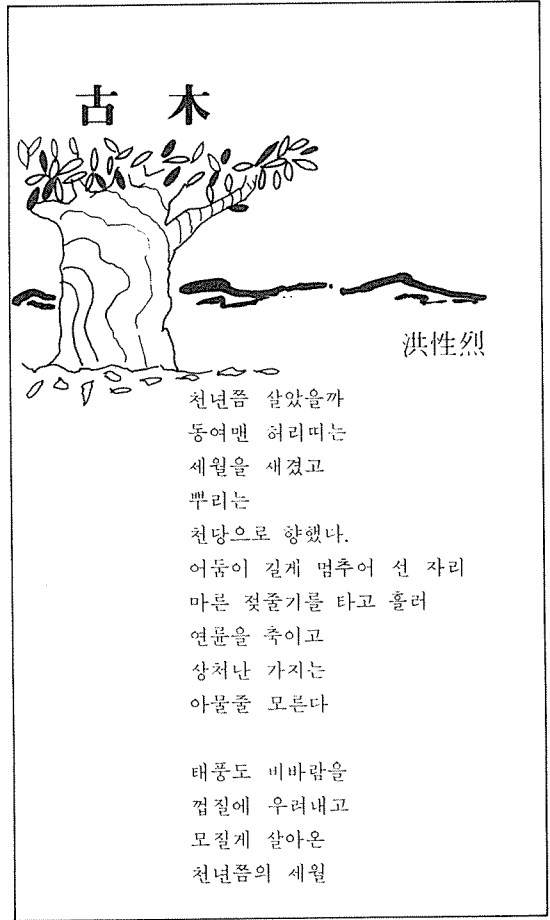
장 인우

「Job을 지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싶을 뿐이다」고 얘기한 어느 대학생의 말이 생각난다.

그렇다 우리의 시대는 이제 Implosion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가 전문분야를 담당만하는 전문가로서 직분을 다한다기보다 서로 내적으로 부딪히며 한 인류로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하겠다는 생각아래서 나보다 약하고 병든자를 위로하며 그들에게 평안과 용기와 힘을 주며 자신의 역할을(Role) 최선을 다하여 담당해야겠다는 의식을 가지며 일해야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것 같다.

서로 상호교류하며 내가 가진것을 남에게 주고 남이 가진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이시대에 나의 것만을 고수하며 고립된 상태에서 모든일을 처리하려는 사상이나 체제는 이미 전시대인 기계시대의 낡은체제라는 것을 맥류한의 「인간의 확장」에서 다시 한번 느낄수 있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이 시대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듯하다. 학생들은 스승이 주는 지식만을 습득하기 위한다기 보다 나도 스승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여야 하며 환자가 치료사의 말을 잘 듣기를 기다리며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의료진들은 환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우리의 학문을 남이 개척하여 주기만을 기다리며 훌륭한 지금보다 나은 위치를 확보하고자해서는 안된다. 우리 스스로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알고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모든 사람들과 서로 나누어 가지며 자신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여야 할것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서로 상호교류하여야겠다는 정신과, 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눈내린 아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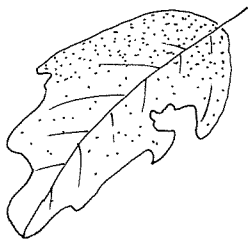
김정숙

눈이 내린 이른 아침
 아무도 걷지 않은 호젓한 길위에
 당신의 힘찬 발자국을 찍으십시오.
 욕심에 붙들지 않고
 방황에 걸들여지지않은 맑은 마음으로
 밝아오는 태양을 우러러
 남부끄럽지않은 당신만의 발자국을 찍으십시오.
 빗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부터라도
 당신을 위한 시간의 문을 활짝열어 젖히고
 내딛을 발자국을 미리 생각 하십시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 맨처음 배운 말처럼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대기실에서의 설레임처럼
 천년을 간직해온 비밀을 고해성사 할때의 솔직함으로
 이제
 당신은 처음의 새로움으로
 당신의 발자국을 힘차게 찍으십시오.

雪 夜(설야)

김호봉

새하얀 눈송이
 가지마다 쌓이고
 대지의 평은은
 적막 속에 깊어라
 정다운 내님과
 쌓인눈 밟으며
 끝없는 사랑
 미래를 간직한 채
 눈부신 대자연
 그 속에 잠들고파라.



사우디에서 온편지

WED. 2 12. 28. '83

정 진우 회장님께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보내 주신 카드와 짧은 글 반갑게 받았어요.

여전히 특유하신 유우머 덕에 유쾌도 해 졌어요.

모두들 잘들 있고 평안하니 그냥 마음이 놓이는군요.

이곳의 물리치료사들의 소식을 재가 아는데로 자세히 적지요.

1. 배 회성(75. 고대졸) 이곳서 우리 한국물리치료사의 책임자로서 제일 연장자입니다. 울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2. 박 옥남(78. 고대졸) 이곳의 고참자로 4번째 휴가를 지금 서울서 보내고 있어요.
3. 강 후남(78. 고대졸) 작년에 저와 함께 왔죠. 성 바오로 병원근무 하다가
4. 최 회숙(78. 고대졸) 배회성씨와 함께 왔어요. 2번째 휴가 마치고 3번째 근무에 들어 갔지요.
5. 김 인숙(78. 고대졸) 2년전 이곳에서 1년 일하고 지난 여름 다시 또 왔어요.
6. 정 은선(79. 고대졸) 3번째 근무 끝내고 내년 2월말에 귀국했어요. 전에 부산 메리놀병원에 있었답니다.
7. 하 중선(? 신구졸) 3번째 근무중 유일하게 이곳서 사귀 남자와 지난 봄 서울 휴가가서 결혼하고 왔어요. 물론 신랑도 지금 이곳서 H그룹회사에 근무중. 열렬한 기독교 신자랍니다.
8. 배 순덕(79. 고대졸) 지난달에 온 신참
9. 이 선(80. 고대졸) 백병원 근무하다 작년에 저와 함께 왔어요. 우리 물리치료사중에 제일 미인이죠.
10. 윤 영숙(? 대구보전졸) 대구서 개인병원에 있었답니다. 배 순덕과 함께왔어요.
11. 김 선숙(? 신구졸) 인천 북음 병원 근무하다 김인숙과 함께 지난 여름에 왔어요.
12. 두 정민(? 원광졸) 제일 막내동이 충남 대전에서 근무하다 김인숙 김선숙과 함께왔어요.
13. 이 현경(13. 고대졸) 잘 아시다시피.....
14. 이 혜경(? 동남보전) 3번째 근무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회외적 비판적이라는것 아시죠?

잠깐 이곳 이야기 할께요.

우리 14명+파키스탄 P. T. 2명+이집트 P. T 6명(이집션 보조 P. T 1명도 끼어야함)+사우디 P. T 7명에 의사 남자 3명, 여자 3명 이것이 곳 개관외과와 식구들이죠. 그중 이집션 6명(보조 1명 포함)과 파키스탄 2명 코리언 4명이 외래 환자를 위한 P. T실에서 의사들과 함께 일하고 Paraplegia care Section에선 이집션 P. T실장(여자) 1명과 사우디 7명, 그외 코 리언은 각 Section을 나눠서 일하고 있어요(입원환자).

의외로 Chest P. T가 많아 처음 온 우리들은 문제를 갖게 되지요. 한두 Section에 한명씩 맡아 일을 하는데 아시다 시피 일하다보면 시간이 남아 돌아 할일없이 소일 하는데 그것이 종종 발각 되어 이곳에서 찬밥 신세가 되는데 우리 코리 P. T가 1등이지요. 이곳은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참 어려운 곳이에요. 너무 밀착 해서 사니 Nervous해 지기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있는 방에 물리치료사 한명 임상병리사 한명이 같이 있는데 워낙 잠을 중시 하는 나라라 대체 10시 10 반이면 자리에 눕죠. 그러면 열사람은 초저녁에 잠자다 그때면 일어나 자기일 시작. 그러다보니 조그만 소리에도 퍼뜩 퍼뜩 놀라 이제는 모기만한 소리에도 가슴이 팔딱 뛰고 잠을 놓치게 되었으니 살이 썰려야 썰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너무 과민한게 아닌가 싶어 조심하려 하는데... 많이 힘든 생활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제 하고 싶은대로 하면서 잘 지내니까 큰 문제는 없는 셈이죠.

월급: 기본급이 1950SR(1SR=220원)에 경력 1년마다 100SR이 가산되고, 1년에 9개월간 연장 근무를 하고 O. T수당은 월 부급의 40%인데 그 O. T가 이곳 새 회계년도부터 없어지고 본봉에서 20%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O. T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O. T 있을때와 똑같이 하루 9시간 주 50시간 근무이니 도리어 봉급이 확 줄어든 셈이 되지요.

솔직히 말해 이곳에 오고자 하는 이들에게 권장할 바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서도 우리들이 이곳에 미련을 두는것은 서울 가서의 대책이 막연하기 뎀에 어쩔수 없이 이려고 있는게지요.

간호원과 기본급이 300SR 차이가 나요. 학제 때문이죠. 저는 야간 대학이라고, 신병성이없다고 인정을 못 받았죠. 게다가 행정적으로 점점 죄여오니까 더욱 힘들어져요 안팎으로 모두.

「한편으론 이런 말들 쓰는 것이 창피한거 있죠? 내 팔이 너무 아파 더 이상은 자세히 안 쓸래요. 대신 휴가 가서 만나 뵙고 말씀 드릴께요. 개밥의 도토리가 바로 이곳의 Korean P. T 지요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저는 그리 생각되네요-」

앞으로 2년 남은 이곳의 계약기간 어찌 보내야 할지 막연하고 한국 돌아간 후의 일도 마냥 막연 해요. 그 생각들 때 마다 밤맛이 툭 떨어진다니까요. 나이 30이 넘어 가지고 일을 새로이 시작 한다는 것도 그렇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어학 부족으로 많이 곤란해요.

말이라도 웬만큼 한다면 지금 이꼴 보다는 좀 나을텐데 어쨌든 오년 후를 대비 해서 무엇이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조금 궁금증이 풀어 지셨어요?

미안 해요. 밝은 내용이 되질 못해서. 그러나 제논엔 그리만 비쳐 지니 그냥 솔직히 제가 느낀대로 썼을 뿐이에요. 자유가 극히 제한 되어진 간헐 생활. 편파적이 되기가 일쑤 인것이 이곳의 특징이지요. 400명의 대 식구. 그래도 병원 출근하면 그만큼의 EGYPTZAD이 있고 SAUDZ가 있고 PAKISTAN이 있지요 그외 INDO, TAILAND, 수단…… 영국, 인간박물관 이에요. 건물 조차도 낡았고. 제일 후진곳이죠 이 병원이. 후진 대우, 후진 시설, 그래도 물자는 풍부하죠. . 비록 우리들 7개월 동안 O. T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모든 것이 일절 무료로 세금이 없는 나라. 반면 물가는 비싸고, 외국인-선진 열강 美英등은 제외-에 두눈 부릅뜨는 나라. 글자 모르는 문지기가 캐딜락을 몰고다니죠. 그네들 봉급은 우리의 10배가 되고, 이곳 환자들은 우리들을 자기네 하인취급하고. 한편에선 개 먹는다 알보고 또 더한 것은 아이를 먹는다고 오인하고 있죠. 우리가 돈에 쫓겨러 이곳에 온 줄 알고 일을 앞에 놓고 Korean만 보면 ‘염’을 탐하는 이곳 남정네들-

도대체 우리나라는 무엇을 얻자고, 무엇을 잃자고 이런 상태를 방치 하고 있는지-.

슬프다 못해 화나고 참자니 속병이 생기죠. 그렇다고 덮어 놓고 탓할 수 없는 것이 그래도 결정은 자신이 내려 이곳을 온 것이라는 것.

그럼 저렇 하며 보낸 것이 11개월이 지났어요.

금새 똬를 맞이 하겠지요.

별의 별일 겪어도 보면서 깨달아 지는것도 있었고, 제일 크게 느낀것의 약소국의 실음과 우리나라의 모습이 풍랑 앞에 놓인 등잔불 같이 절실하게 보이는가 하면 삭막하고 항상 싸움이 그칠새 없는 이 주위국에 비해 얼마나 살기 좋고 툭툭한 이들-어학 실력제외-이 사는 나라 인가도 동시에 느꼈죠.

또 막상 이국 만리로 떨어져 있다보니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도 확실해 졌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상실-아름다운것, 꼭 갖추어야할 것-이 되어감을 느끼게 되죠.

바둥 바둥 거려도 막아지지 않는 세월의 빠름도.

이곳의 Real함을 아신다면 뭐라하실까?

우선은 책망, 개탄, 충고-그것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할 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곳을 청산 할 텐데 그러니까 답답하죠.

모든 이들이 하나 같이-

신년 편지가 너무 셋빛이죠?

어때요 요즘 병원 요즘 P. T 사회. P. T 대책……

많이 궁금해요.

한국 돌아가서도 물리치료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만 직업을 가져야 하는건 아닌지-. 많이 우왕 좌왕 그러나 건강 합니다. 주기적인 몸살이야 늘상 있는것이니 절 최악함이 절대 아니고 무지들건강들 해요. 모두가 우리 물리치료 대표가 정선생님의 안부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며 덕분에 모두 잘 있다고 안부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군요. 자 이제 그만 쓸래요.

항상 밝으신 모습.

서울의 어느 술집에선가 뵙게 되겠죠?

안녕히 계세요.

1984년 1월 26일